

考試科目	韓文 61613	系所別	韓國語文學系	考試時間	二月十八日(六)第三節
------	----------	-----	--------	------	-------------

一、選擇題(12%·每題 2%)

<1~2.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가: 선물로 받았던 꽃이 사흘도 못 가서 시드는 걸 보니까 안타까워요.

나: 꽃은 피면 ()

- ① 지는 법 있어요.
- ② 질까 봐요
- ③ 지나 봐요.
- ④ 지는 법이에요.

2. 가: 김장을 했는데 보관할 데가 마땅치 않네요. 김치 냉장고가 있으면 좋을텐데 ...

나: 글세말이에요. 지난 번 세일할 때 ()

- ① 사지 않을 걸 그랬어요.
- ② 살걸 그랬어요.
- ③ 사지 않은걸요.
- ④ 샀잖아요.

3. 밑줄 친 부분이 정확한 문장을 고르십시오.

- ① 고기를 너무 익으면 맛이 제대로 나지 않을 것이다.
- ② 친구와 맛있는 식당에 갔지만 배가 체해서 밥을 많이 남았다.
- ③ 바나나를 얼어 먹으면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
- ④ 바지가 너무 길어서 길이를 좀 줄이고 싶다.

4. 문법에 어긋난 것은?

- ①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싶은 본능이 있다.
- ② 인터넷 시대에 온라인 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회사 업무를 다루는 것이 많아지고 있다.
- ③ 그 놀이는 카드 녀 장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 ④ 한류는 21 세기 초엽에 동아시아에서 형성되었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5. 그동안 가족들 모두 너무 바빠서 얘기 나눌 시간도 없었는데 설날을 맞아 ()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네요.

- ① 일부러
- ② 그만

備 註

- 一、作答於試題上者，不予計分。
- 二、試題請隨卷繳交。

考試科目	韓文 61613	系所別	韓國語文學系	考試時間	2月18日(六) 第三節
------	-------------	-----	--------	------	--------------

- ③ 모처럼
- ④ 항상

6. A: 현대 사회에 남의 진심을 잘 알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부를 잘 하는 사람은 인기가 많아요.

B: 그런데 나는 일부러 () 것이 되게 싫거든요.

- ① 발목 잡는
- ② 한눈 파는
- ③ 비행기 태우는
- ④ 날개 돋치는

二、請閱讀下列文章後作答(18%・每題3%)

(1) <다음 글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자성어나 속담을 고르십시오.>

1. 가: 그 사람이 이혼했다며?

나: 그건 나밖에 모르는 소식인데 어떻게 알았어?

가: 다 아는 수가 있지. 이 세상엔 비밀이란 없어.

- ① 집안에 앉아서도 천리를 본다.
- ②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도 샌다.
- ③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 ④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2. 가: 우리 옆집 작은 애가 이번에 유학 간다며?

나: 네, 나도 그렇게 들었어요.

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더니만 과연 다르군. 그럼 큰 애는? 아직도 대학에 못 들어갔나?

나: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도 얼마나 야무진 지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동생 유학 가는 데 보탠대요. 공부만 잘하면 뭐해요? 돈 무서운 줄 모르는 동생보다 낫죠.

- ① 찬물도 위, 아래가 있다.
- ② 형 만한 아우 없다.
- ③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 ④ 술과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의학자 박찬국씨는 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사람은 일단 병이 나면 먹는 것을 줄이는 게 좋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먹는 것을 줄이면 사람의 기운이 떨어져서 몸이 더욱 나빠질 것 같지만, 사실은 먹는 것을

考試科目	韓文 61613	系所別	韓國語文學系	考試時間	2月18日(六)第三節
------	-------------	-----	--------	------	-------------

줄이는 것이 몸의 기운을 회복하는 빠른 방법 중의 하나이다. 병 때문에 입맛이 없어지는 것은 병을 치료하기 위한 인체 스스로의 반응이므로 억지로 먹으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인체는 병이 나면 잠을 자려 한다. 우리가 평소에도 잠을 자고 나면 힘이 생기는 것처럼 아플 때야말로 잠을 자야 힘을 만들 수 있다. 병이 나면 일반적으로 힘이 떨어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도 병을 치료하기 위한 수단이다. 아프면 활동을 억제하고 휴식을 취함으로써 몸이 빨리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병이야말로 건강을 회복시키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병이 나면 억지로 병을 낫게 하지 말고 순순히 그 병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일단 그 병을 받아들여 제대로 앓고 나면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지만 이 병을 제대로 앓지 않으면 몸에 여러 가지 무리가 가는 것이다. 박찬국 <한의학의 질병관>

3. 위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 ① 병이 낫을 때는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 많이 먹어야 한다.
- ② 먹는 것을 줄이는 것이 회복에 좋다.
- ③ 잠을 많이 잘수록 힘이 떨어진다.
- ④ 병에 걸리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낫도록 해야 한다.

4. 이 글을 쓴 사람의 병에 대한 입장으로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 ① 병에 걸리면 건강을 해치기 쉽다.
- ② 병은 억지로라도 빨리 고쳐야 한다.
- ③ 병이 나면 힘이 떨어져 활동을 못하므로 보약을 먹어야 한다.
- ④ 병이 나면 제대로 앓도록 그냥 놓아 두는 것도 하나의 치료 방법이다.

(3) 다음은 어떤 재즈 음악가의 말입니다.

저는 우선 재즈를 흑인음악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재즈가 아프리카 음악에서 비롯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 백인들이 흑인 재즈를 백인음악화하여 재즈는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유럽에서도 재즈를 유럽식으로 변형시켜 '이지엠'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습니다. 저는 국내 가요를 재즈화하여 재즈를 한국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재즈 드러머인 아버지를 따라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 거기서 성장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미국으로 가서 공부했습니다.

남미, 미국이라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남미의 재즈건 미국의 재즈건 그 자체를 공부하더라도 그 나라 대중의 정서와 감성을 완전히 체득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감정과 정서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재즈의 선율에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재즈에는 한국 대중의 정서와 감성에 어울리는 우리만의 그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5. 이 음악가는 재즈를 한국적으로 성공하게 해석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考試科目	韓文 61613	系所別	韓國語文學系	考試時間	2月18日(六)第三節
------	-------------	-----	--------	------	-------------

생각합니까?

- ① 한국 노래의 선율에 잘 어울리는 것
- ② 한국의 전통 음악에 잘 어울리는 것
- ③ 한국 대중의 정서와 감성에 잘 어울리는 것
- ④ 한국 대중의 성격에 잘 어울리는 것

6. 음악가의 말을 잘 요약한 것은?

- ① 모든 문화는 인접 문화와의 교류를 통해 발전한다.
- ② 우리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 ③ 외래의 문화라도 그 나라에 맞게 변형되어 수용되어야 한다.
- ④ 한국적인 내용과 외래적인 형식을 혼합시킨 새로운 문화가 필요하다.

三、翻譯 (30%)

1. 那個人自稱是檢察官，大家信以為真，沒想到一問才知道竟然是冒牌的，真不敢置信。很多人差點被騙了。(7%)
2. 目前韓國最大的社會病態就是兩極化。包含所得兩極化、雇用兩極化、教育兩極化等所有兩極化的社會現象，若放置不解決的話，貧富差距只會日益嚴重，很難期待人民的生活可以提升。(12%)
3. 一直預警著少子化和高齡化社會的嚴重性的喬治學者表示，開發中國家在高齡化現象最嚴重的2020~2035年以前，應該要儘早建立一個可以給年輕世代對未來懷抱希望的社會。(11%)

四、作文(40%)

제목: 배신자에게

備

註

- 一、作答於試題上者，不予計分。
- 二、試題請隨卷繳交。